



담소 나누는 어르신들 13일 제주시 성산을 고성리에서 마을 어르신들이 시원한 바람이 오가는 나무그늘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강혁만기자

암벽등반 50대 10m 아래로 추락해 중상

서귀포의 한 오름에서 암벽등반을 하던 50대가 추락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46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단산에서 50대

남성 A씨가 10m 아래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9구급대는 산악용 들것과 로프를 이용해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양유리기자

처남댁에 흥기 휘두른 70대 구속 송치

재산 문제로 다투던 중 처남의 아내를 흥기로 위협하고 다치게 한 7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낮 12시 3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주택에서 처남의 아내인 60대 여성 B씨에게 흥

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산 문제로 다투던 중 감정이 격해진 A씨가 흥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일 A씨를 구속하고, 지난 8일 검찰에 넘겼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여성폭력 상담 급증… 지난해 대비 2000여건 증가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 상반기 상담 통계
성폭력·디지털성범죄·교제폭력·스토킹 등 늘어
외국인 상담 의뢰 감소세… 내국인은 53% 증가**

올해 상반기 제주에서 성폭력과 디지털성범죄 관련 상담이 3~4배가량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이하 1366 제주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진행된 상담은 총 7666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86건과 비교해 2479건(47.8%) 증가했다.

가장 많은 상담이 이뤄진 유형은 가정폭력으로 511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550건보다 44.1% 증가

했다. 반면 만에 지난해 전체 가정폭력 상담의 절반을 훌쩍 넘는 74.5% 수준에 달했다.

또 성폭력 상담건수는 46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14건보다 4.1배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상담건수는 교제폭력 2.6배(181건→473건), 스토킹은 2.5배(175건→433건), 디지털성범죄는 3.2배(23건→73건) 증가했다. 다만 성매매 피해상담은 지난해 상반기 57건에서 올해 34건으로 유일하게 감소했다.

상반기 기준 외국인 상담은 지난해 대비 약 16.8% 감소한 반면, 내국인 상담은 53%가량 크게 증가했다.

상담은 본인이 의뢰한 경우가 5924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 908건, 상담소·쉼터 486건, 그 외 기관 244건, 가족 및 친인척 66건, 지인 30건, 배우자 7건 등이다.

상담방법으로는 전화 6070건, 내방 755건, 사이버 611건, 방문 229건 등의 순이었다.

1366 제주센터 관계자는 “최근 들어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 등이 범죄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관련 피해상담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며 “피해 사례 중에서는 여러

피해가 동시에 발생하는 고난도 사례가 많아 올해 유독 상담건수가 늘어난 측면이 있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센터로 연계되는 피해자 상담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366 제주센터는 각종 여성폭력 피해자와 그 동반자를 위한 긴급 상담과 보호(긴급 피난처)를 실시한다.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폭력을 경험한 경우 제주센터(064-1366)로 전화하면 언제라도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제주시내 식당서 화재

노모 숨지고 60대 부부 경상

제주시내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나 80대 여성이 숨지고 60대 부부가 다쳤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 53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식당에서 연기와 불꽃이 보인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은 신고 접수 3분만에 현장에 도착했으나 80대 여성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또 이 화재로 60대 남성 B씨와 60대 여성 C씨가 경상을 입었다.

불은 오전 5시 19분쯤 완전히 꺼졌다.

A씨는 C씨의 어머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식당 내부에서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은 A씨가 발견된 1층 좌측 계단 밑 휴게공간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조사를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독자 제보 750-2232

“4·3평화재단 장학사업 선발 기준 미흡”

**도 감사위 감사결과… 유족 경제 상황 반영 못해
행정상 조치 26건·신분상 조치 6명 등 처분 요구**

제주4·3평화재단이 시행하는 장학사업 대상자 선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주4·3평화재단 종합감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도 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 2건, 주의 10건, 개선 3건, 통보 11건 등 총 26건의 행정상 조치와 훈계 3건, 주의 3건 등 총 6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할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4·3평화재단은 4·3유족 후손을 대상으로 장

학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행 선발 기준이 유족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우선순위 대상자를 발굴할 수 없는 데도 현행 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없이 3년 내내 유지했다.

또 제주4·3장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대상자가 동일세대일 경우 이중 1명만 뽑아야 하지만 동일세대 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에게 장학금 대상 수요 환경에 맞게 선별 항목 등을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제주4·3장학금과 지정장

학금을 구분해 각 장학금의 목적과 기탁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로부터 위탁받은 4·3 소장자료를 관리하면서 일부 자료를 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한 사실과 유물정리실·수장영역홀을 본래 목적이 아닌 일반 창고 및 직원 휴게실로 활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 감사위는 제주4·3아카이브 웹사이트 운영 미흡과 출연금 예산의 보조금 임의 재교부 부적정,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관리 부적정 사례 등을 적발해 관리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통보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시 중산간지역에 폭염주의보 발효

기상청은 13일 오전 11시를 기해 제주시 중산간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를 웃도는 상태가 이를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서귀포시 남부·제주시 서부에는

폭염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14일은 폭염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다.

제주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23~27℃, 낮 최고기온은 28~36℃로 예보됐다.

양유리기자



제주 최초
청각학 박사 학위 취득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청각학)



원장 강 동 우

-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교수
- 전문청능사 언어재활사
- 한국청능사협회 상임이사
-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운영이사
-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정회원

와이덱스보청기

강동우 청각센터

청각학 박사가 직접 상담하는 청각전문센터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관리로
더 잘 듣고, 더 편안한 일상을 함께합니다.

개인마다 다른 청력 상태와 생활환경을 고려한 정확한 평가와 맞춤 상담,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여러분의 소중한 청력을 지켜드립니다.


청력 평가


난청 상담


보청기 상담


청능재활


지속적인 사후관리

강동우청각센터의 차별성

 청각학 박사 직접 상담	 체계적인 피팅 및 관리 시스템
 최신 청력평가 장비 운영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신뢰
 개인별 청취환경 분석	 검증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다이소 옆

청각의 가치를 높여
더 나은 삶을 함께합니다

제주시 등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 755. 1005

홈페이지
자세히 보기



hearingjeju.com